

김준호 "김지민, 결혼 후 성격 변해…배신감 든다" 갈등 고백

등록 2026.06.05 10:03:08



[서울=뉴시스]'이호선의 사이다'(사진=SBS Plus 제공) 2026.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김준호가 아내 김지민이 결혼 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6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SBS Plus '이호선의 사이다'에서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연자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김지민의 남편 김준호가 방송 23회 만에 직접 스튜디오를 찾는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등장한 김준호를 본 김지민은 "너무 깜짝 놀랐다"며 당황한다.

김준호는 "사연자로 왔다"며 "(김지민과) 연애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김지민이 결혼 후 성격이 변했다. 솔직히 배신감이 든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연애 때는 나를 많이 좋아했다. 지금은 가졌으니까, 잡아 놓은 물고기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인다.

김지민은 "뭐 하는 거야"라고 반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